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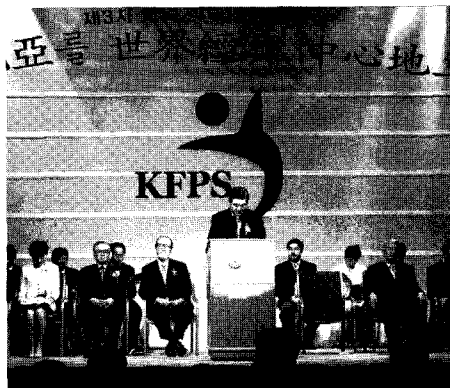
#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제3차 한·중·일 직능경제인 서울대회 개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지난달 5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직능경제인 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차 한·중·일 직능경제인 서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 2회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직능경제인들만의 자리로 치러졌으나 이번 3회 대회는 중국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규모와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동북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직능경제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일본 대표 8백여명과 중국 소수 민족기업단 대표 2백여명, 그리고 한국의 직능경제인 대표 2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본 학생들의 합창, 한복쇼 등의 축하무대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개식선언과 함께 참가국의 국민의례, 대회장 인사말, 축사가 이어졌고 대회를 축하하는 의미의 화관무, 살풀이 공연, 태평무 등이 이어졌다.



◀ ‘제3차 한·중·일 직능경제인 서울대회’ 문상주 회장의 개회사를 하는 모습.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을 비롯하여 정재욱 부회장, 이영주 이사, 추숙희 이사, 김미자, 김예애, 리정혜, 선혜련, 조은경 회원이 참석하여 직능경제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발명가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한국,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의장에 잇따라 진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제7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특허청 안재현 과장(서기관)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35개국 이사국의 만장일치 지지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WIPO 사업예산위원회(WIPO Program and Budget Committee)는 WIPO 총 회원국 1백79개국을 대표하는 35개국으로 구성되며, WIPO의 주요정책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WIPO의 대표적인 위원회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 5천6백억원에 해당하는 2004년과 2005년 WIPO의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WIPO 사업예산위원회의 의장 선출은 그동안 특허청이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에서의 국제무대진출 강화와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WIPO는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 각종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이슈를 총괄하고 있는 UN 산하 전문 국제기구로서 산업재

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등 22개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무역투자위원회에서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의장으로 특허청의 장준호 서기관이 선출된 바 있다.

IPEG는 1996년 창설된 APEC 역내의 무역 및 투자에의 원 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APEC 산하의 지식재산분야 위원회로 APEC 산하 위원회 중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동안 특허청은 IPEG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이번의 의장으로 선출된 장준호 서기관의 주도하에 APEC 프로젝트인 개도국 특허청 정보화 건설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따라서 APEC IPEG 의장에 특허청의 장준호 서기관이 선임된 것은 특허청의 사업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행정의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노벨상 시상식의 최연소 초대손님

사스키아 반 홀텐은 1990년, 18세 되던 해에 노벨과학상 시상식에 초대손님으로 초청되었다. 물론 노벨상 수상자로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사스키아는 스톡홀름 국제청년 과학학술대회에 참가한 네덜란드 출신의 유일한 젊고 돋보이는 과학자였는데, 그 학술대회는 노벨과학 시상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었다.

사스키아는 독일, 프랑스어, 터키어, 영어 등 여러 나라의 말을 잘 아는 유능한 소녀로 1984년은 그녀에게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준 해였다. 1984년부터 2년 동안 가족이 살던 뉴욕에서 사스키아는 UN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수학과 과학 과목을 좋아했고 거기서 태양에너지에 관한 과제로 상을 받기도 했다.

1990년, 사람들은 유럽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으며 네덜란드 신문에서 그녀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명성은 사스키아가 가스쿠커를 위한 안전장치를 발명했기 때문이었다.

‘안전장치는 타이머에 연결된 센서로서 각 스토브 버너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냄비를 삼발이에서 내리면 일정한 시간(약 30~40초)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가스 스위치가 차단되는 장치다. 이것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을 위한 뛰어난 보호체계다’라며 사스키아는 이 발명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학교에서 20세까지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발명대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 순간에서야 가스쿠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것을 즉시 델프트 대학에 보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두달 후 델프트 대학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내가 수상자라는. 2천5백길더의 상금뿐 아니라 지멘스(Siemens)사에서 제공하는 뮌헨여행자격도 받았다.’

가스쿠커 회사들은 그녀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쿠커에 대한 센서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타이머에 전기를 사용했으나 간단하고 싼 기계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공은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조차 물리학이 남성들만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스키아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머릿속에 가득찬 ‘여러 가지 기발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꿀 젊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 잠깐만!

## 몸에 좋은 자연식이란...

자연식이란 영양분이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이르거나 이를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식품 공업이 영양 보충에 큰 공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첨가함으로써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폐단을 사회문제로까지 받아들이며 가공식품과 화학물질을 첨가시킨 식품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몸에 좋은 자연식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자연식은 화학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정식품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식품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강정, 강장식품 및 체질개선 제조정식품 등 건강증진식품이라든가, 영양강장식품(비타민, 미네랄 첨가식품 등) 및 영양가감식품(저칼로리, 저나트륨, 저단백, 고단백, 저지방식품 등) 등 특별용도식품까지 통틀어 자연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식의 개념은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

하자는 것으로 현재까지 상식화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되도록 가공도(加功度)가 적은 것.
- ②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일 것.
- ③ 제철에 나오는 식품을 먹도록 한다(이를 시식(時食)이라 한다).
- ④ 일물전체식(一物全體食), 즉 식품을 지나치게 다듬거나 잘라내지 않고 전체를 먹도록 한다. 이를테면 삶은 백미가 아닌 현미나 배아미로, 과일이나 채소는 껍질, 잎사귀, 줄기 등을 함께 먹고, 생선은 뼈째 먹어야 균형잡힌 종합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편식을 하지 말고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

### 종류별로 알아보는 자연식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순정식품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천연식품, 즉 전혀 오염되지 않은 토지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또는 사육한 곡식, 채소, 육류, 생선 등을 뜻한다.  
자연식은 1960년대 미국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을 지닌 히피들이 오거닉 푸드(organic food)라고 하여 천연식품을 숭상했던 풍조에서 비롯되었다.

### 건강증진식품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으로서 주로 정력제 또는 강장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약리 효과에 해당하는 효능을 표방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보다도 민간전승(民間傳承) 또는 경험적으로 개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보급이 유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 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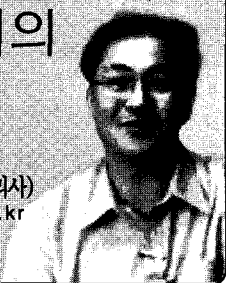
신라의 화랑도가 유명한 산과 큰 하천을 찾아다니며 수련할 때 간편하게 지니고 다녔던 자연건강식으로 7가지 곡식을 섞어 만들어 먹었던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도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먹던 고단백 영양식이었다가 편리함과 영양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즐겨먹는 식품으로 발전하였다.

7가지 곡식이란 현미, 쌀, 보리, 검정콩, 검정깨, 들깨, 율무를 가리킨다. 위에 부담이 적고 간편하며, 섬유질과 향미가 알맞게 혼합되어 포만감은 없어도 기력을 강화하여 준다는 특징이 있다.

|기고문|

### 특허출원에서의 무한동력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사람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한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배설되는데 그 배설물은 다시 먹지 못한다.

만약 그 배설물을 다시 먹을 수 있다면 농사는 필요 없을 것이고 인간은 매우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인간끼리 경쟁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은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일을 하며 먹을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 분야에서도 투입된 에너지로 장치를 구동시키고, 그 배출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여 재투입 에너지로 100% 사용할 수 있다면 석유·원자력 개발이니 하는 말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구의 창조주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는 소모되고 소모된 에너지를 100% 재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신의 섭리라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신의 섭리에 도전하는 발명가들이 많다. 필자의 사무실을 찾은 한 사람도 이러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 발명가는 100% 재활용에 도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활용 효율을 어떻게 더 높이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라고 충고했다.

특허법에서도 이러한 무한동력을 출원하면 발명의 '성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특허법상 구별해야 할 것이 무한동력이 아니어서 발명으로서 성립되지만 실시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다.

특허법상 자신의 발명을 출원할 경우에는 꼭 만들어진 발명품이 아니라라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심사관이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데 개인 발명가가 실질적으로 재현해 볼 수 없는 큰 규모의 발명인 경우에는 심사관을 설득시켜야만 하는 커다란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무한동력이라고 거절 받으면 출원인은 무한동력이 아니라 에너지 재활용 효율이 뛰어난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도 무한동력은 입증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무한동력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서 거절이 확정되고 이를 반복시키기 힘들게 된다. 아직까지 무한동력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단편적인 예로 인간 복제 역시 무한동력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허가 되지 않는다. 인간복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론도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신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인간 복제 기술로 인한 사회 혼란을 인간 스스로가 아직 방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단 동물 복제는 특허가 된다).

아직도 감기를 단시간에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에이즈가 급속히 퍼지고 있고 사스가 열병처럼 번져나가도 치료할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한 인간들의 기술이 유전자 변형을 했다고 하여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이론은 맞지 않다. 무한동력은 신의 영역으로 남겨 두자. 대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특허출원 해보자.

## 보성, 영광, 금산 등 일부 지역 상표 등록길 열려

앞으로는 지리적 표시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적 조건 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상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2005년 1월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한국지식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올 연말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 및 가공자, 단체인, 법인인 지리적 표시를 단체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배타

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녹차 및 굴비, 인삼 등으로 유명한 보성, 영광, 금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지역 특산품의 제품 차별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유무역협상 등 국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 화상디자인 의장 출원 줄을 잇고있다

아바타, 아이콘 등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의장 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17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휴대폰과 웹 사이트의 초기화면, 아바타, 아이콘 등 각종 화상 디자인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인정받은 지 한 달여만에 70여건이 출원됐다고 한다.

업체별로는 정보가전 및 휴대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LG홈쇼핑, 인터넷 포털업체인 NHN 등이 정보기기 및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화상 디자인을 출원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바타나 아이콘 출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실제 물품에만 허용해온 의장 등록 기준을 개정하여 냉장고와 정보가전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명령창,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정

보기기의 화면 구성, 웹사이트 초기화면과 아바타, 이모티콘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전원을 켜는 때만 보이는 디지털 자산으로 그동안 의장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화상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화상 디자인 보호에 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컸던 만큼 관련 의장출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 생활 속의 지혜 ◎

#### 가구 제대로 고르는 체크 포인트

가구는 한 번 구입하고 나면 오래 쓰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세심하게 고려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구를 고를 때는 집안에 있는 가구와 서로 분위기가 맞는 것을 골라야 일체감을 주어 집안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공간과 가구의 사이즈를 맞추는 것. 불박이나 시스템화한 가구가 인기를 끄는 것도 불필요한 공간을 남기지 않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장롱 '습기 막기 위해서는 양쪽벽면 5cm 공간 뒤야'

장롱은 이불장과 옷장을 겸하는 가구로 가정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가구로 양쪽 벽면과 5cm 정도 공간을 두고 들어갈 수 있어야 습기도 막고 불필요한 공간도 남기지 않아 이상적이다.

침대생활을 한다면 이불장보다는 옷장으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인지 내부 수납공간을 잘 살펴야 한다. 양말, 넥타이, 속옷 등 소품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으며 수시로 열고 닫아야 하는 만큼 손잡이나 문의 연결나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가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장롱의 생명은 수평이므로 6개월에 한번씩은 수평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 장롱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롱의 위아래 부분에 생기는 먼지는 세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청소해주고, 서랍은 먼지를 말끔히 제거한 후 알코올로 닦아주어 살균까지 해주는 것이 좋다. 서랍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밑에 짐작을 넣어놓으면 좀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롱 표

면은 마른 걸레나 헝겊으로 닦아 광택을 살려주면 오랫동안 새것처럼 쓸 수 있다.

#### 침대 '탄력성 확인은 필수'

침대의 생명은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최근 스프링 대신 천연 생고무로 만든 라텍스나 야자수 잎을 이용한 팜 등 신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잘 살펴보고 고른다. 침대를 고를 때는 일단 누워본 후 이리저리 뒤척이며 탄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트리스는 구입 후 바로 비닐을 벗겨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패드를 깔고 시트를 씌워 사용해야 더러워지지 않는다.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매트리스를 세워 통풍을 시켜주고, 3개월에 한번은 매트리스를 180도로 회전시켜 스프링의 균형을 잡아준다.

#### 가족소파 '3일에 한번 가죽크림으로 닦아줘야'

가족소파는 매일 닦아주는 것이 좋으며 2~3일에 한번은 가죽전용크림을 바르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자연스런 윤기가 배어 가죽 고유의 멋을 살릴 수 있다. 패브릭 소파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팀청소기를 이용하면 살균도 할 수 있어 금상첨화.

